

# “불교 배우며 더위 잊어요”

### 파라미타 청소년캠프

올 여름 청소년들이 불교를 느끼고 배우는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7월 22~25일 3박4일간 전남 화순과 광주에서 제11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캠프는 승보사찰 송광사 탐방을 비롯해 광주 전통놀이연구회가 주관하는 전통놀이체험과 5·18국립묘지 참배, 담양 죽녹원 견학,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아쿠아나 수상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광주시장상 등이 걸려있는 백일장과 교법사단이 주관하는 신행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지역 예선 심사를 거친 음악페스티벌의 대상자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접수·문의는 전화와 홈페이지(www.paramita.or.kr)로 가능하다. (02)723-6165

노덕현 기자

## 만해마을 청소년시인학교 8월 12일부터 2박3일간

무소유·자연 친화·생명사상을 펼쳐온 ‘백담사 만해마을’이 8월 12일부터 2박3일간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시인학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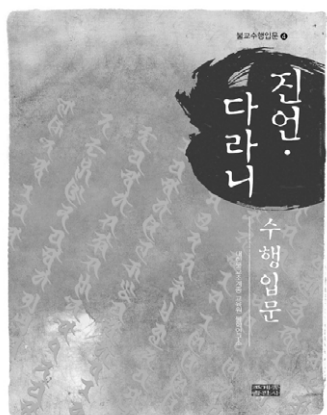
원로 및 중진 문인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창작 워크숍, 백담사 산행과 동해바다 기행,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은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간 <시와 시화>과 백담사만해마을이 공동 주관하는 만해 시인학교는 기성시인 뿐만 아니라 시인 지망생 및 시를 사랑하는 어른과 학생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7월 10일까지 선착순 접수. (02)744-0110

기연숙 기자

# “주력수행 쉽게 배워보세요”

## 조계종 교육원 ‘진언·다라니 수행입문’ 도서 출간



“천수다라니를 그냥 읽기만 하고, 외기만 하면 수행이 되는 걸까?” “능엄주는 수능엄삼매 경지를 열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천수경> <능엄경> 등에 담긴 다라니 수행법을 제시한 책이 종단 차원에서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7월 4일 출간한 <진언·다라니 수행입문>(조계종출판사)은 간화선, 염불, 진언·다라니, 간경의 조계종 5대 수행법을 일반인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의 네 번째 도서다.

이 책은 진언·다라니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 진언·다라니 수행의 실제와 수행절차, 공덕 등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주력수행은 불교의례와 수행법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이지만 종단 차원의 주력수행 입문서가 없

었다. 주력수행하는 불자들이 바른 수행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2008년 하반기 <간경 수행입문>을 끝으로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를 완간할 예정이다.

### ▲천수다라니 수행은 이렇게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애

송하는 천수다라니.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해 가피를 얻으려고 이 다라니를 독송한다. 천수다라니는 왜 설했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응축한 천수다라니는 자비심, 평등심, 무위심, 공경심, 무상보리심, 공관심, 무견취심, 무열착심, 무잡란심의 9가지 마음을 알기 위해 설했다. 천수다라니 독송의 근본 목적은 독송자가 9가지 마음을 알아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천수다라니의 올바른 수행법은 무작정 외는 것이 아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지송하는 것이다.

천수다라니 수행법은 준비·예경·발원·참회·염송 등으로 나뉜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재가자를 위한 수행법

- 진언 수행 장소를 깨끗이 하고, 안행과 마음기쁨을 청정화한다.
- 수행 장소에 관음보살상이나 석가모니불 등을 모신다. 여의치 않으면 불상을 관상(觀想)해도 무방하다.
- 수행 전 3일이나 7일 등 일정 기간 동안 계행 실천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 기도 공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곳을 성스럽게 생각한다.
- 다라니를 외우기에 앞서 여러 불보살과, 천신들 또는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한다.
-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며, 큰 자비심을 일으켜 남을 위해 기도한다.
- 다라니를 염송할 때는 다라니에 믿음과 집중을 연습한다.
- 다라니 공덕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 기도가 끝나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참회한다.

### 국내 이주민 산사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이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산사워크숍을 개최한다. 7월 19~20일 서울 진관사에서 국제결혼 이주민을 위한 ‘제9회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워크숍’이 바로 그것.

국제결혼 가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음악치료(토브 음악치료연구소 채경수), 참선과 미술치료(정순영 미술치료사), 다도, 웃음치료(한국웃음복지연구소 이정호), 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02)737-8803

김성우 기자

### 천태종 교원불자 수련법회

천태종이 종단 산하 교원 불자와 유치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련법회를 잇달아 연다.

천태종은 7월 29~31일 인천 황룡사에서 제23회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법회를, 7월 30일~8월 1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9회 종단산하 직할 유치원 교직원 수련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김성우 기자

## 김천에 직지사노인요양원 개원

###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등 대상...치료·여가시설 구비

경북 김천시에 불교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연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는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직지사노인요양원(원장 성언) 개원식을 봉행한다.

직지사 인근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황악산 자락에 위치한 직지사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건물은 975㎡의 지상 2층 규모이며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 입소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일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췄다. 개원에 앞서 이미 40여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개원식은 국



7월 16일 개원하는 직지사노인요양원.

악한마당 등 식전행사에 이어 축사와 인사말 등으로 진행된다. 원장 성언 스님은 “복지혜택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불심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054)431-4980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환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 “물도 중생에 따라 달리 보여”

### <1>송광사 추강 대화상

추강 스님은 1949년부터 1950년까지,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송광사 주지를 두 번이나 하신 분으로, 성은 조씨이고 이름은 봉우이다.

1956년 6월 10일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낙수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순천역에서 16국사가 난 송광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길을 물으니, 한 노인이,

“16국사만 나오. 앞으로 도인이 두 분이 더 난다고 합니다.” 하였다. 호기심 아닌 호기심 때문에 낙수행 버스를 타고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 송광사에 이르니, 1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동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지나가다 짙 구경 왔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고 길을 안내한다. 상사당 밑 하사당으로 가니 흰찰한 키에 불그스레한 얼굴을 한 자비스런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 주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선 후원에 가서 저녁공양을 하고 오게.” 말씀대로 후원에 갔으나 목기에 칠 냄새가 가득 배어 울퉁 비위가 거슬러 입맛만 다시고 그냥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늦었으니 그냥 자고 내일 이야기 하세”하고 뒷방에 자리를 깔아주었다.

새벽 3시, 목탁소리가 나더니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놀라 깨어 보니 아랫방에 호통불이 켜져 있고, 노스님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잠해 앉아 계시다가 나갔다. 잠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보조 국사의 <정혜결사본>이 놓여져 있었다.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인해서 일어나야 하고, 마음을 잘못 써 타락한 사람은 마음

을 고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나는 당시 오순절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죄의 대가로서 받는다’ 생각하였는데, 바로 이 말을 나를 위해 써진 것 같아 큰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추강 스님은 상좌 인암 스님을 불러 사찰구경을 시키라 하신다.

중국의 왕세자가 와서 3일 만에 도를 깨웠다든 삼일암을 중심으로, 나한전, 국사전, 화엄전, 해당당, 법성로, 사천왕전을 지나 6감정에 이르러 말씀하셨다.

“같은 물도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달리 보이므로 6감정이라 한다.”

말하자면 하늘이 물을 보면 유리로 보이고, 고기가 보면 집으로 보이며, 귀신이 보면 불로 보이고, 사람이 보면 물로 보이고, 축생이 보면 먹이로 보이고, 수라가 보면 전쟁의 도구로 보인다는 말이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본 세상도 안경을 쓰고 보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절은 고려 때 보조 국사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최첨단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었는데, 한국전쟁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남은 것은 겨우 64동, 그나마 쓸 데 없는 창고와 숙소만 남아 복구사업에 여념이 없다.” 하신다. 이튿날 추강 스님은

노랑 봉투에 두 장의 편지를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통영 미래사에 가서 하나는 효봉 스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취봉 스님께 드리면 알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종단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효봉 스님이 송광사에 오시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강 스님은 이듬해 주지 임기를 마치고 오대산 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따라 갔다가 스님은 상원사에 계시고, 나는 월정사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

##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 (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에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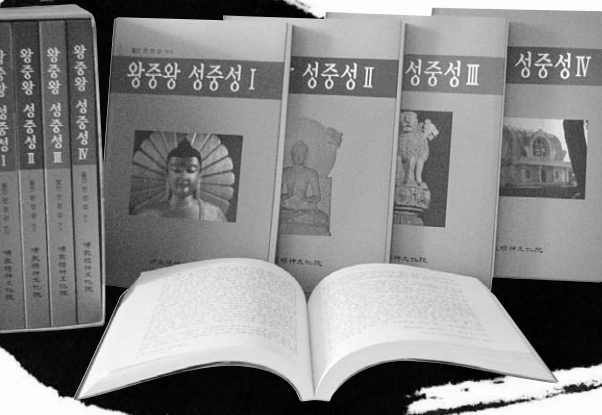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 ‘왕중왕성중성’ 王中王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환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난 역작...

■ 환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공공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